



“돈을 쫓기보다는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GS춘천충전소

강원협회의 추천으로 호반의 도시 춘천 근화동에 위치한 GS춘천충전소를 찾아가 김영렬대표와 이야기를 나눴다.

김영렬대표는 실제 LPG업계에 종사한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LPG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며, 우리업계가 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확실한 주장을 펼쳤다.

김대표는 현재 LNG도시가스에 밀려 점차 축소되고 있는 LPG 프로판산업과 관련해서 “에너지 분야도 일반투자와 마찬가지로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국가 에너지안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원간 적절한 포트폴리오가 매우 중요하다” 며 정부의 도시가스 편향정책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협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LPG 수요확대와 LPG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LPG업계가 대국민홍보 활동을 강화해야한다” 고 주장하기도 했다.

GS춘천충전소는 81년 충전소설립 이후 28년동안 춘천지역 LPG공급을 담당해왔다. 특히, 10명의 직원중 5명이 안전관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을 위한 비용은 회사에서 전액지원하고 자격증 취득자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을 지급할 정도로 안전관리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었다.

또한, 65~70세 고령자를 5명이나 충전원으로 고용함으로써 지역사회 노인인력 활용에도 앞장서고 있었다. 김대표는 “노인인력이 기민성에서는 다소 뒤지기는 하지만, 항상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젊은이들에게 모범이 되고, 장기근속이 가능해 충전소에도 실제 많은 도움이 된다” 며, “돈을 쫓기보다는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고 했다.



실제로 충전원으로 근무 중인 OO씨(69세)는 “노인들이 일자리 찾기가 매우 힘든데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자체가 기쁘다.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 있어 열심히 일하고 있다” 며 환한 웃음을 보였다.

한편, GS충천충전소에서는 업무용차량으로 LPG차를 운행하고 있었다. 김대표는 “LPG충전소에서 LPG차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며 “지난해 모닝 LPG모델이 출시돼 바로 업무용차량으로 렌트해 사용하고 있다” 는 말에 LPG에 대한 각별한 애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2010년 새해 목표가 무엇이나고 물어보자 “충전소의 부사고와 직원들의 건강이 최우선 목표” 라며, “보다 가족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직원들이 신명나는 회사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새해 목표를 밝혔다.

